

부산지역 전통시장 내 유통 농산물의 유해물질 실태에 관한 연구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2017년 부산지역 전통시장 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II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기간 및 대상
 - 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 - 대상 : 부산지역 전통시장 내 유통 농산물 287건
- 연구방법
 - 시료채취장소 : 부산지역 전통시장
 - 시험내용 : 품목별 잔류농약 및 중금속 오염도 분석
 - 시험방법 : 식품공전의 다중 농약 다성분 분석법 및 중금속 시험(납, 카드뮴)

III 연구결과

- 잔류농약 검사결과
 - 조사대상 287건 중 23개 품목에서 44개의 시료에서 농약이 검출
 - 감 1건(25.0%), 감귤 3건(23.0%), 고추 4건(57.1%), 돌나물 1건(100%), 들깻잎 1건(33.3%), 레몬 3건(75.0%), 망고 2건(40%), 방울토마토 1건(12.5%), 배 1건(8.3%), 부추 5건(71.4%), 사과 4건(28.6%), 살구 1건(100%), 상추 1건(16.7%), 짬배추 1건(33.3%), 오렌지 2건(20%), 오이 1건(14.3%), 참나물 2건(100%), 참다래 1건(16.7%), 참외 1건(9.1%), 체리 1건(33.3%), 토마토 1건(7.7%), 파 1건(33.3%) 및 포도 5건(45.5%)을 차지하였음
 -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1197건 중 98건이 검출되어 8.2%의 검출율을 보였고, 부적합은 3건으로 0.3%의 부적합율을 보였다. 전통시장 유통농산물 15.3%와 비교할 때 검출율은 전통시장이 높았고, 부적합은 0건으로 전통시장이 낮은 부적합율을 보였음
 - 농산물 소분류별 검출율은 엽채류 38.9%, 감귤류 28.5%, 장과류 26.3%, 인과류 20.0%, 엽채류 18.5%, 핵과류 18.2%, 박과이외과채류 16.7%, 열대과일류 10.3%, 박과

과채류 7.1% 이였음

- 검출된 농약은 총 22종 58회 검출, 살균제인 Procymidone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음

○ 중금속 검사결과

- 287건 모두 식품공전의 중금속 기준 이하로 적합

IV | 정책연계방안

- 부산지역 전통시장 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수준 실태 파악
- 농산물 안전성확보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등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

V | 활용계획

- 부산시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 축적